

전통문화도시 전주 곳곳서 추석행사 '다채'

28일~10월 3일 추석 연휴 기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전통놀이 한마당 등 진행

추석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 관광 거점도시인 전주 곳곳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전주 멋 일데이플러스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념품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거점 도시 전주를 알릴 예정이다.

최명희문화관은 △혼불로 읽는 한가위 △혼불 문장 자동 출력기 등 최명희의 작품과 소설 '혼불'을 활용한 '2023 한가위 혼불 여행, 한가위 보름달 걸렸네' 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는 전통주와 전통모주 무료시음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등 세시풍속 한마당 행사가 마련된다.

전주부채문화관에서는 한가위 할인 행사로 합죽선과 단선, 체험 부채 등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

며, 문화관 마당에서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완판본문화관에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추석을 뜨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을 담아 소원을 적어 보는 '추석맞이 소원지 쓰기' 행사가 3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역사박물관은 26일부터 진행되는 기획전시 '와! 서당에 갈 시간이야'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주역사박물관이 제작한 전주를 상징하는 캐릭터 '역바이'와 '뽕율이'가 처음 선보이

며, 과거 서당 교육에서 활용됐던 △서책 △'서당 백일장'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 위치한 어진박물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2023 한가위 박물관 여행'을 운영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추석연휴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다양한 추석행사 및 놀이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만든다

전주시, 도심하천 풀베기 작업 완료·공중화장실 개방 등 나서

전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명절 전까지 전주천·삼천의 풀베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삼천 신평교 및 효천교 인근 공중화장실을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많은 도심하천 구간과 우범 지역의 풀베기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또 지난 6월 개방한 전주천 자원봉사센터 인근 공중화장실과 삼천 마전교 파크골프장 인근 공중화장실 등 2곳에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삼천 신평교 및 효천교 인근 공중화장실 2개소를 개방했다.

시는 오는 10월에는 전주한옥마을

인근 전주천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전주천 하까지구 인근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의 기존 나트륨·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밝은 천변길을 조성하고,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과 지장수목 제거 등도 꾸준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맞닿아있는 하천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26일 35사단 전주대대와 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등 전주지역 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향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추석 명절 맞아 군 장병 위로

35사단 전주대대·항공대대 등 지역 군부대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위로를 했다.

우범기 시장은 26일 35사단 전주대대와 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등 전주 지역 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향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날 실시된 '2023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난해를 폭우 피해 등 어려운 고비마다 헌신적으로 복구를 위해 봉사해 온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향토방위라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전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군 장병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군 부대와 건강할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 추진... 시민 주거환경 개선 기대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삼천동 공동묘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사유지에 무단으로 조성된 삼천동 공동묘지(삼천동2가 549-12번지, 1만7620㎡) 분묘를 정비하는 '삼천동 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삼천동 공동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와 분묘 연고자 조사를 통해 유언분묘 229기와 무연분묘 147기 등 총 376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확인된 분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고자의 분묘이장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분묘 이장에 대한 보상 일환으로 분묘 1기당 377만9400원의 이장비가 지급되며, 상속권이 있는 연고자가 분묘 소재지인 삼천3동 주민센터에 분묘 개장 신고 및 이장을 완료한 후 시청 회계과에 분묘이장비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 사업 부지 측량 및 분묘 376기에 대한 묘적부 작성을 완료하고 유언분묘에 대한 보상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무연고 분묘 개장공역을 실시해 모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시 회계과는 "삼천동 묘지 정비사업으로 인해 시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 등 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이 조기 개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 택시

전주시설공단, '노인의 날' 이지콜 무료 운행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전 연령 교통약자 대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제 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2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인 '이지콜' 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고,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노인의 날 이지콜 무료 운행 대상은 '노인'을 비롯한 전 연령의 교통약자다.

종전에는 노인의 날의 의미를 고려해 노인 교통약자, 또는 노인을 동반

한 가족 등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의 날은 물론 어린이날과 가정의 날에도 전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39-2731)로 문의하면 무료 이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
SEE:D Blooming Tomorrow



2023 국제종자박람회 KOREA SEED EXPO 2023

2023.10.5. 목 ~ 10.7. 토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김제시 백산면 씨앗길 232)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주관 | KQ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김제지평선 축제 10.5.(목) ~ 10.9.(월)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2023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지평선축제와 함께합니다.